



##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식물의 세계

이문구의 소설집 제목 『내 몸은 너무 오래 서있거나 걸어왔다』는 김명인의 『의자』라는 시에서 따온 것이다. 이 소설집에 들어있는 7개의 연작소설들은 찔레나무, 화살나무, 소테나무, 개암나무, 싸리나무, 으름나무, 고욤나무와 같은 제목을 지녔다. 이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나무는 찔레나무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나무들이다. 유실수도 관상수도 아닌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크게 쓸모가 없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소설의 제목 속에 나오는 나무들은 모두 상징과 비유로서 쓰이고 있는데, 이문구의 다른 소설들처럼 자본주의 시대에 환금성이 없는 인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추방과 유폐의 상징일 것이다. 그러나 그 쓸모 없는 나무들은 작가의 말대로 “숲을 이루는 데는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나무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의 가치가 희미한, 그러나 자기 쫓대와 고집은 뚜렷한 사람들을 뜻할 것이다” 하여 나무는 돈 없고 힘 없는 일년살이 들이지만 숲을 이루는 데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요즘 우리들은 꽃과 나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자는 우리들이 나무를 비롯한 식물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식민지 침략전쟁과 강제 개종, 경제적 수탈 등의 행위를 정당화한(104쪽) 제국주의자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소개하곤 하던 원주민들은 무식하고 난폭하다는 이들의 묘사와 달리, 우리도 부러워해야 할 만큼 식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했던 서술은, 위 세대들은 ‘식물이란 생존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치료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를 총망라하여 토종 약제 체제를 성립하고 있었던 것이고, ‘식물을 보이지 않는 존재, 자연의 제반 현상을 관장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간주한(105쪽) 부분이다.

다시 생각하자. 동물적 경쟁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식물은 무엇인가? 식물은 ‘인간의 물질적인 조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89쪽) 상징이다. 이 책의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오직 식물의 세계만이 물질적인 죽음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봄이면 다시 살아나는 식물들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89쪽) 그리고 이런 서술들을 보면 이 책의 매혹을 느낄 것이다. 밀은 질서를 낳고, 포도주는 무질서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빵과 포도주는 인간 생활에서 서로 상반되면서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축을 이룬다. 이는 식물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진다.(154쪽)

원제가 『식물의 매력』(La Magie des

plantes)인 『식물의 역사와 신화』는 ‘식물의 마술’과 ‘마술의 식물’로 구분되어 있다. 전편에서는 생명으로서 먼 장래에도 유일하게 생존하게 될 나무,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무기물을 유기물로, 무생물을 생물로, 비활성 물질을 생명체로 바꾸는 식물의 역할, 식물과 동물의 경쟁, 스스로 생존을 방어하기 위한 적응력으로 동물의 생명력보다 더 우월한 식물의 생명력, 성장을 멈추는 법이 없는 나무의 수명이 동물들의 수명보다 훨씬 웃도는 현상들, 최초 인간에게 주된 양식이었던 식물, 자연적인 균형이나 종(種) 간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치료기제로서의 식물, 신화 속의 식물을 서술하고 있고, 후편은 49개의 식물을 골라 그 특성을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식물성의 저항』(이인성, 열림원, 2000)을 읽었고, 이미 번역된 『나무 신화』(Mythologie des arbres, 주향은 옮김, 이학사, 2000)도 찾아 읽었다. 자크 브로스의 나무에 관한 책 가운데 『나무 신화』도 꼭 읽어보아야 할 좋은 책이다. 저자는 이미 『나무 사전』(Larousse des arbres: Dictionnaire des arbres et des arbustes, 2004)으로 이 분야에서 유명한 나무 작가이다. 

안치윤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구평론가